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7. 1. 1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요즘 관가는 '삼실의 시대' ('17.1.12, 서울신문)

1. 기사내용

- ☐ 산업통상자원부 A사무관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간부에게 청첩장을 건넸으며, 협회는 50여개 회원사에게 청첩장 내용을 이메일로 송부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A사무관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간부에게 청첩장을 건넸 것이 아니라, 협회 직원이 책상위에 있는 청첩장을 A사무관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져갔으며, A사무관의 동의나 허락 없이 협회 자체적으로 회원사에게 공지한 것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 전제구 (044-203-5420)